

<도시의 섬 _ 관계자 출입금지 > 전시서문

이따금 도시가 유난히 춥다는 생각을 한다.
스마트폰 지도 속에 뻑뻑이 들어차 있는 건물들은 실제로 내 눈 앞에 거대히 펼쳐져 있다.
이것만 있으면 나는 이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을 일도, 가까운 길을 돌아갈 일도 없다.
그리고 문득,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.

오랜만에 만난 동창생들과 한 잔,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주 한 캔을 산다.
머리가 어질하다.
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고 연기를 본다.
지나간 인연들이 보인다.
그리고 문득,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.

슬픔이 몰려오자 눈물을 흘리고 싶었다. 일 분, 이 분, 삼 분, 오 분.
눈물이 나오지 않았다.
너무너무 슬픈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 스스로도 적잖이 놀라 버린다.
그리고 문득, 슬프다는 생각을 했다.

"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. 그 섬에 가고 싶다" - 장그리니에, <섬>

자존심, 걸치레, 평판, 그리고 시선들.
무수한 생의 굴레 속에서 쓴웃음과 함께 삼키고 말았던 그 이야기.
이제 여기 당신과 나 사이, 굴레에서 비켜난 이 곳, 도시의 섬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.

가면을 쓴다.
들어간다.
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다.
저 사람이 누군지, 저 사람들도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.
작은 방에는 허공을 가득 메우는 그 무엇의 기운이 있다.
이따금 그 기운은 나를 짓누르기도, 살살 달래기도 한다.
웃음이 난다.
눈동자가 흔들리기도 한다.
이윽고 계단을 올라 그 곳을 나온다. 가면을 벗는다. 집에 왔다.
"나는 도시의 섬에 다녀왔다. 관계자가 출입 금지된 도시의 섬에."

글_ 박성호

이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 있으며, 사용 시 출처와 저자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